

남원공설시장 ‘치매안심시장’ 조성

남원시공설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 맺고 54개 상가 치매안심가게 신청

남원시는 고령층은 물론 치매환자와 가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을 ‘치매안심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5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어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치매안심시장으로 지정된 ‘남원공설시장’은 지난 10월 남원시공설시장상인회(회장 이만근)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 내 54개 상가 치매안심가게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에 옛 추억 속 기억을 되살릴 ‘피어나는 기억점빵’과 ‘치매환자 장보기 모의훈련’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먼저 치매안심가게 신청 상인에게는 치매환자 응대법 등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장보기 지원과 실증 치매환자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치매파트너로 활동하게 되며, 운영 가게에는 치매안심가게 지정 표창을 부착하게 된다.

특히 시장 안에 옛 추억 속 기억을 되살릴 ‘피어나는 기억점빵’을 만들고, 치매 인식개선캠페인, 찾아가는 인



남원시는 고령층은 물론 치매환자와 가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을 ‘치매안심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 선별검사, 치매환자 장보기 훈련 등 시민과 함께 치매환자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피어나는 기억점빵’은 노령층의 기억을 자극하는 추억 속 교복과 옛날 상회와 다방을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기구와 소품을 비치하여 친숙함을 느끼도록 구성하여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민들도 치매환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단비봉사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며, 봉사단은 치매환자와 같이 장보기 실습, 시장 길찾기 등 장보기 모의훈련을 하게 된다.

박은아 치매안심과장은 “치매안심시장은 단순한 시장 공간을 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산타축제, 겨울 동화 속으로 초대

21~2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서 개최... 방문객 맞이 만전

오는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임실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2024 임실 산타축제가 방문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11만명의 역대 최대 관광객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축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대형 음식 부스 추가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치즈테마파크 랜드마크인 치즈캐슬 앞 10미터 높이의 웅장한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눈사람, 사슴 조형물 등의 겨울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포인세티아 장식 등으로 벌써 겨울철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 핫플레이스 장소로 SNS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장미원 입구 터널을 비롯한 행사장



곳곳에 트리와 대형 산타 및 선물 박스 등 화려한 장식으로 겨울 테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축제 기간 이벤트 광장에서 선보여지는 높이 5m 길이 50m의 대형 눈썰매장 조성으로 가족, 친구 연인 모두 눈썰매를 타며 짜릿한 스릴과 신나고 재미있는 겨울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경관을 통해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과 함께 힐링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임실 산타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용수 순창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위한 정책 제언

순창군의원 최용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기존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생활인구 확대



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500만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 △순창군 명예 군민증 제작과 관광지 무료입장 및 지역 소상공인 연계 업체 할인 혜택 제공 △적성 마개부대 군인 및 가족의 정주인구 등록 제도 마련 △체류형 관광객 대상 숙박비 할인 혜택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생활인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베트남 팡닌성, 관광활성화 협력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재단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북부 경제중심지 팡닌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관광·문화·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선운숙 대표는 베트남 팡닌성을 방문해 팡닌성 관광청(부처장 응웬 람

응웬 Nguyen Lam Nguyen), 팡닌성 관광협회(부회장 쩌티히엔 Tran Thi Hien)을 만나 양국 지역 간 관광 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에 뜻을 함께했다.

두 지역은 앞으로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 문화, 교육 등의 적극적인 교류는 물론 지역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지방소멸 대응 방안 논의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달 28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지자체로는 전북 순창군, 충북 괴산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감사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와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아동행복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달 28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등 순창형 복지정책 시행 후 9년 만에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순창군의 혁신적인 인구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성과를 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내·외 현금성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

역 여건에 맞는 현금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최영일 군수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